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한인 출마

오는 10월 20일 치러지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한인이 출마한다.

16일 BBC에 따르면 볼리비아 기독교민주당(PDC)은 이날 한국계 목사 정치현(49) 씨가 이 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볼리비아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인 선교사 부모와 함께 37년 전 볼리비아로 건너갔다. 이후 볼리비아 사법수도인 수크레의 샌프란시스코 하비에르국립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뒤 외과의사이자 목사로 활동했다. 또 현재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현 씨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는 첫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이자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사회주의운동당),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좌익혁명전선당, 2003-2005 집권) 등이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5년 처음 당선된 이후 2009년과 2014년에도 연임했다. 2016년 그의 4선 도전 가능 여부를 묻는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연임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볼리비아 최고 선



거 재판소는 지난해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도전을 수용했다.

다민족국가인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내륙국으로, 행정수도는 라파스, 사법수도는 수크레이다. 면적은 1,099,000km²로 한국(100,210km²)의 약 10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1,100만 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719달러(2018년 기준)이다.

독일, 통일세 징수 중단 통일 30여년 만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30여년 만에 '통일세'를 없애기로 했다.

통일세가 동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크게 남으며 실효성이 줄어들었다는 여론이 커진데다가 독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전날 그동안 통일세 명목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5.5%를 추가 부과하던 것을 2021년부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납세 대상자의 90%는 통일세 면제를 받게되고, 나머지 6.5%의 납세자도 세율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통일세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일에서 '솔리(Soli)'라고 불리는 통일세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이듬해부터 동독의 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초기엔 7.5%의 세율로 임시적인 성격으로 도입됐다가 1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급증하자 재원 충당을 위해 1995년 재도입됐다. 1997년부터는 세율이 5.5%로 낮아진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독일은 지난해 통일세로만 189억 유로(약 210억 달러)를 거둬들이는 등 2005년 이후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

독일이 여태껏 쓴 통일비용은 총 2조 유로(약 2조 2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일세는 이 비용의 15~20% 가량을 책임지며 독특한 기여를 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은 6월 산업생산이 10년여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0.4%에 그친데 이어 2분기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집권 연정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9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우익성향인 독일대안당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네팔, 에베레스트 등반 규정 대폭 강화

네팔 정부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m)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반허가 규정을 강화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해발 6,500m 이상의 산을 한번 이상 등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에베레스트 등반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팔 정부 자문패널이 최근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증명해줄 수 있는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하며, 반드시 경험있는 가이드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도 제안됐다.

이번 조치는 '등반 초보자'들의 무분별한 에베레스트 등정 도전으로 인해 다른 등반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에베레스트에서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희생자 중 상당수의 사인으로 정상 부근 '병목현상'이 지목됐다.

등반가가 좁고 가파른 정상 부근에서 수 시간씩 기다리다가 산소가 동나고 체력이 소진된 탓에 하산 과정 등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패널은 또한 에베레스트 입산료로 최소 3만5,000달러, 그리고 해발 8,000m 이상 등반자에게 2만 달러를 받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게시 바타리 네팔 관광부 장관은 "에베레스트 등반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겠다. 우리의 산들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